

국회도서관의

알려지지 않은 업무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의 최고 사명은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와 지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책’이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약 7백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둘째,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내 및 해외자료를 가공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정보는 주로 간행물로 돼 있는데,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획일적으로 제공된다. 셋째, 개별 국회의원이 특정 입법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요청하고, 국회도서관이 이에 회답하는 형태다. 국회도서관은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창출하는 세 가지 형태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서비스는 일종의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정보 서비스지만 다른 사람

이 사용해도 별다른 불편함이 없다. 공공재의 두 가지 특성인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타성(non-excludability)’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서비스는 국민에게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서비스는 일종의 맞춤형 서비스이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의 사상과 관심분야는 제각각이다. 그래서 입법 주제와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그 파급효과는 지대하기 때문에 법은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법을 만들려면, 이미 해당 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입법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입법으로 야기되는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세 번째 서비스가 이러한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이런 정보는 의원이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밀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 물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공재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세 번째 서비스는 개인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속속들이 알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이 인식하는 국회도서관의 업무범위와 실제 업무범위에는 괴리가 있다. 다시 말해 국회도서관

66

국회도서관의 최고 사명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업무는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숨어있는 업무다.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률은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의 입법보좌 업무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99

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밖에서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하는 업무는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 많은 경우, 공공부문에서 비밀성을 앞세워서 비효율적인 업무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서비스의 효율성을 평가해 봤다. 효율성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업무는 효율적이 된다. '애국심'과 '열심히 한다'는 논리로 얼마든지 비효율성을 효율성으로 바꿀 수 있다. 효율성 평가는 숫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효율성 평가는 어려운 작업이고, 기초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이를 도출해 내기 어렵다. 국회도서관의 업무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최선이 아닌 차선의 자료로 이를 평가해 보았다. 지난 20대 국회가 국회도서관에 요청한 자료는 총 1만8033건이었다. 평균치로 보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60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숫자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요청한 정보들이 얼마나 입법에 반영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자료의 한계상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소관자료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해 보았다.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요청한 자료 건수는 총 2054건이었고, 이들 의원이 실제로 법률안을 발의한 건수는 2955건이었다.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한 정보가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의 회답 내용과 법률안의 핵심어를 조사해 공통된 핵심어가 존재하는지 살펴봤다. 또 회답을 요청한 의원과 법률안을 제안한 의원이 일치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 모두가 일치하는 회답 자료가 전체 법률안의 77%를 차지했다. 국회도서관의 회답업무가 국회의원이 입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개별의원에게 제공하는 회답서비스가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는가? 이는 국회도서관의 업무평가에 중요한 자료다. 비록 표본으로 선별한 하나의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평가이고, 엄밀성 차원에서 좀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77%가 일치한다는 결과 자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회도서관의 최고 사명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업무는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숨어있는 업무다.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률은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의 입법보좌 업무는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결국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국회도서관의 자랑스러운 업무다. 🌍